

## 2022 년 10 월 23 일 “예수님의 비유(16) 불의한(민첩한) 청지기”(눅 16:1-13)

위기를 민첩하게 대처한 청지기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 [1] 청지기 생각의 전환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낭비해서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계의 위협 가운데서 벗어날 비상한 대책을 떠올립니다 (4 절). 그리고 주인에게 빛진 자들의 채무를 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주인은 그를 칭찬해주었습니다(8 절 '지혜롭다'). 그는 남은 자신의 인생에 돈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날에도 돈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치 않고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 회사들을 잘 봐주다가 사직하면 그 회사에 영접받는 경우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는 주인이 얼마나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 일을 했습니다. 헨리 포드의 일화를 생각해 보세요(설교 참고). 이 사람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했는데, 빛의 자녀들이란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안다고 자부했지만 엄격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분으로 알았지 자기 것을 쓰도록 내주시는 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바리새인들 같이 하나님이 잘못을 지적하는 분으로만 인식해서 주님의 크신 배려 속에서 베푸신 것들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내가 돈을 쓰는 방식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기실 것처럼 생각하며 불필요한 죄책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 [2] 작은 일에 충실한 것

청지기를 칭찬하신 것에 덧붙인 말씀들은 파격적입니다.

9 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10 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며(10 절) 참된 것을 말기신다(11 절).

불의한 재물이란 불로소득이나 나쁜 짓을 해서 번 것이라기 보다 세상이 추앙하는 가치로서 돈(맘몬)을 의미합니다. 그런 돈이지만 잘 사용해서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돈에 집착하여 믿고 앙망하면 그에겐 독과 해가 됩니다. 그러나 돈을 자신을 위해서 또는 이타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청지기가 행한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결국 참된 것을 말기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돈은 내 주머니에 있어도 본래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내게 맡겨 주셨으므로 본문의 청지기처럼 사람을 가까이하는데 쓰고, 더 나아가 참된 일을 위해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한 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 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13 절) 재물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갈림길에서 바르게 사용하는 길을 택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하셨고, 하나님을 엄격한 분으로만 알고 있는 '빛의 자녀들'(바리새인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평가하셨습니다. 본문은 재물을 사용하는 영적 생활에 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부단히 묵상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청지기보다 한 수 더 뛰어넘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불의한 청지기가 잘했다고 칭찬받는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2. 재물에 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영적으로 바른 재물관입니까?